

“송악산 뉴오션타운...경관 차단·사유화”

시민단체·대정읍 주민, 어제 회견서 도의회에 환경평가 동의안 부동의 촉구

셋알오름 등 원형 훼손 우려 “헬스케어 반면교사 삼아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월25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와 대정읍 주민들로 구성된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단체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과 셋알오름의 연약한 화산지질에 대한 매우 깊은 심도의 터파기 공사로 오름 원형 훼손이 우려된다”며 “이를 우려하는 대정읍 주민 1096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안도로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으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높은 고도와 통풍을 차단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해안도로 중심으로 각각 밀집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경관이 차단되고 사유화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로 인해 하수용량이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하수배출을 할 수 없다. 무분별하게 대규모 관광객을 수용하는 관광시설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는 송악산 일대에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송악산 오름 분화구 인근까지 엄청난 양의 사유지를 사들인 상태였다.

이 사업은 그해 9월까지 경관심의위에서 4차례 보류됐으나 지난 2016년 9월 건축고도를 28m로 낮춰 가가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원희룡 지사가 경관과 지질 등을 문제 삼아 송악산유원지 사업 재검토를 시사했다. 사업은 중지되는 듯 했지만 사업자가 기존 6층안

을 유지하는 대신에 부속동을 4층에서 2층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고 심의위는 1월25일 동의하고 결정한다 바 있다.

이에 단체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책 기조가 불명확해 끝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제주 헬스케어타운 호텔공사 중단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서희 기자 stays@jejuexpress.co.kr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교사·학생 소통도 늘어”

대정고, 어제 간담회...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소개

제주지역에서 고교학점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가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대정고등학교는 25일 제주도교육청 기

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면서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해 2022년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연구학교로 지정된 대정고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이과에 따른 과목 선택이 아닌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했다.

이에 현재 2학년 학생들은 34개 개설된 과목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있다.

대정고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소 개설 인원을 8명으로

확정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체능 계열의 경우 예

외적으로 인원을 하향 조정했다. 신청학생수가 부족해 개설할 수 없었던 과학과제 연구 과목은

인근 대정여고와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해결했다. 김창관 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이 향상됐음을 느낀다”며 “교사와 학생간 소통 시간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우희희 교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사 1인당 담당과목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교원 1인당 수업시수는 대폭 감소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express.co.kr

제주 시내버스 운행시간 일부 조정

6개 노선 대상 내일부터 시행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제주간선(시내버스) 6개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시간을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시내버스는 제주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320번 노선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341(342/348/349)번, 351(352)번, 제주시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355(356/357/358)번, 360번, 365(367/369)번이다.

320번, 360번, 365번은 고등학교 오후 보충수업 시간을 반영해 변경함으로써, 하교시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341번, 351번, 355번 등은 광양사거리-아라초교 중앙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 시

간을 2-5분 단축한다.

변경된 운행시간표는 ‘제주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bus.jeu.go.kr)’와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제주버스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행버스 101번, 181번이 정차하는 정류소도 일부 조정·운영된다.

급행 101번(동일주)의 경우 신촌초등학교 정류소가 ‘급행버스 정차정류소 선정 기준’에 따라, 신촌리는 거주 인구 3000명 이상인 대단위 마을로 분류돼 새롭게 급행정류소로 지정됐다.

급행 181번(제주-5.16도로-서귀포-평화로-제주)은 서귀포시 중앙로 터리의 교통흐름과 안전을 고려해 중앙로터리(서) 정류소를 서귀포동기

소 정류소로 변경해 정착하게 된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express.co.kr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

제주도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결과, 총 47개 사업(사업비 3억6703만7000원)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기금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9개 사업(4억7117만5000원)을 접수받아 사업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2차 제주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express.co.kr

올해 특수학급 15개 학급 신·증설

도교육청, 운영상황 등 점검

올해 특수학급이 15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신·증설된 특수학급 15곳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15개가 확대됐다.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1학급 등 5개 학급이 신설됐으며,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9학급 등 10학급이 증설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달 3일까지 신·증설된 특수학급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에 특수교사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교육요구에 적합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특수학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express.co.kr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구축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노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업비 8000만 원 투입해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한 9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연결돼 행정업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기록을 1년이상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9개 시스템에는 주민등록, 지방세, 건축행정, 인사행정, 국가주소정보, 새마을행정,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음식물류폐기물관리시스템이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jejuexpress.co.kr

SIGN DESIGN 전문기업



에드플러스

www.adplusjeju.co.kr

평범한 디자인은 이제 그만!

Creative Sign Design

사인기획·컨설팅 / 간판 / 현수막 / 실사출력 / LED사인

제주시 도공로 9-1 (3F) 에드플러스

T. 064.702.5338 F.064.702.5339 E. adplus@adplusjeju.co.kr

